

대표팀 예비명단 선수도 못 뚫는다…‘오락가락’ KOVO컵

리베로 다 빠지는 현대캐피탈, 조건부 참가 의사…출전 포기 가능성도
남자부 구단 “대회 전일까지 연맹에 문제 제기…이해할 수 없는 처사”

대회를 취소했다가 다시 열기로 한 ‘2025 여수 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 남자부 경기가 여전히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제배구연맹(FIVB)은 14일 대한배구협회를 통해 한국배구연맹(KOVO)에 이번 대회 재개 승인 조건을 공문으로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FIVB는 2025 세계배구선수권대회 대표팀 예비 명단(long lists)에 포함됐던 선수의 컵대회 출전을 불허했다. 25명의 예비 명단에 현재 배구대표팀에 속한 14명은 물론, 각 소속팀으로 돌아간 11명의 선수가 포함돼 있다.

일부 구단은 예비 명단에 포함됐던 선수를 컵대회에서 활용할 수 없다면 대회 참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이날 “리베로 박경민이 대표팀에 차출돼 현재 컵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리베로는 임성하뿐”이라며 “임성하는 예비 명단에 포함된 적이 있기 때문에 FIVB 조건에 따라 우리 팀은 리베로 없이 컵대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캐피탈은 임성하가 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번 대회 출전을 포기하기로 했다. KOVO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필리핀으로 신두철 사무총장 등을

급파했다. KOVO 관계자는 “대회 현지에서 FIVB 관계자를 만나 관련 조건 항목에 관한 정확한 해석을 묻고 예비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이 컵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캐피탈은 14일까지 KOVO의 답변을 기다린 뒤, 남은 대회 출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예비 명단에 포함돼 이미 컵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3일 남자부 A조 개막전에선 현대캐피탈과 OK저축은행이 예비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을 활용해 경기를 치렀다. KOVO는 두 구단에 해당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각 구단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컵대회 일정이 규정에 위배된다며 KOVO에 여러 차례 문의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구단 관계자는 “대회 출전 전일까지 KOVO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KOVO는 계속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KOVO 관계자는 “그동안 FIVB가 컵대회에 제동을 걸었던 적이 없었고,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대회를 운영했다”며 “어쨌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컵대회를 재정립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KOVO는 프로배구 7개 구단과 초청팀 나콘라차시마(태국)를 포함한 8개 구단이 참가하는 컵대회 남자부 경기를 13일부터 20일까지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FIVB에 외국인 선수 출전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FIVB는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난 후 3주 이상의 휴식기를 가지고서 각국 리그 경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대회 자체에 제동을 걸

었다. 이에 KOVO는 14일 새벽 남자부 대회 취소를 발표했고, 수 시간 뒤 다시 FIVB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면서 대회 재개를 공지했다. FIVB는 컵대회 개최 조건으로 ‘KOVO컵을 위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제한’, ‘외국인 및 외국인 선수 참가 불허’, ‘세계선수권대회 등록 선수의 출전 불허’를 달았다. 초청팀 나콘라차시마는 무관중 상태에서 연습경기 형식으로 출전하기로 했다. 아울러 KOVO는 대회 상금을 없애고 티켓 판매도 하지 않기로 했다. 남자부 잔여 경기는 모두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으로 진행한다. 그나마 예비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의 출전 제재 문제가 해결되어야 대회 재개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킥오프 52초만에 골…LAFC 손흥민, 2호골 터졌다

새너제이에 4-2 승

A매치 기간을 전후로 대표팀과 소속팀을 ‘국내 이동’으로 오간 손흥민(LAFC)이 득점 감각을 유지하며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무대 적응을 이어가고 있다. 손흥민은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의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스와의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 경기 시작 52초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8월 24일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터진 프리킥 골에 이은 손흥민의 MLS 2호 골이다. MLS 데뷔골 때는 팀이 1-1로 비겨 아쉬움이 남았던 손흥민은 이날은 자신의 득점 이후 테니스 부양가의 헤트트릭이 나오며 팀도 4-2로 승리해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이번 새너제이 원정은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MLS로 무대를 옮긴 뒤 처음으로 A매치 기간을 보내고 소속팀에 복귀해 치른 경기라 더욱 시선을 끌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은 선발로 80분을 소화하며 득점포까지 가동했다.

그동안은 A매치 기간 유럽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등 긴 거리를 이동해 온 손흥민은 이번에는 소속팀에서 경기한 뒤 대표팀에 합류하고 돌아가는 길을 모두 ‘국내 이동’으로 소화했다. MLS로 이적하며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준비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던 손흥민에게 9월 A매치는 그 효과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수 있었다. 9월 A매치 기간 그는 미국을 상대로 전반에만 1골 1도움을 기록했고,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도 1골을 넣어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북중미 강호들을 상대로 홍명보호가 1승 1무의 선전을 펼치도록 앞장섰다.



10일 멕시코와의 경기를 마치고 손흥민은 “지난 해에 비해서 올해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아팠던 부분도 많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원래의 컨디션”이라고 말했다. 소속팀에 복귀해서도 그는 경기 시작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골 감각을 뽐내며 자신이 출전한 공식전 3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해 컨디션을 뽐소 드러냈다. MLS가 유럽 빅 리그보다는 선수나 경기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이에 따른 우려도 끊이지 않지만, 손흥민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월드컵 컨디션’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다. 축구 통계 전문 플랫폼은 헤트트릭을 폭발한 부양

가에게 최고 평점 9.7점을 주며 손흥민에게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7.7점을 매겼다. 여기에 손흥민은 이번 경기를 통해 MLS에 ‘흥행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거듭 증명했다. 이날 리바이스 스타디움에는 5만978명이 들어차 새너제이 구단의 한 경기 최다 관중 신기록이 작성됐다. 종전 기록은 2019년 6월 스탠퍼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LA 갤럭시와의 경기 때 5만850명이었다. 원래 1만8000석 규모의 페이팔 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쓰는 새너제이는 지역 라이벌전을 비롯해 많은 팬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는 대규모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연합뉴스

FIFA, 축구협회·광주에 징계 통보

선수등록금지 규정 위반…광주, 벌금·내년 상반기 선수등록 제재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에 각각 벌금과 내년 상반기 선수등록 금지의 징계를 통보했다. 축구협회는 14일 “FIFA로부터 전날 징계를 통보하는 공문이 도착했다”며 “FIFA는 축구협회와 광주에 등록 규정을 어긴 게 명백해 징계 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FIFA는 ‘징계절차 개시’로 명명된 공문에서 축구협회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원)을, 광주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 기간에 선수 등록 금지와 더불어 벌금 1만 스위스프랑(175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FIFA는 축구협회의 벌금에 대해선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유예해 주기로 했고, 광주 역시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등록 금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 등록 기간에는 선수 영입(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포함)에 대해 제재를 받지만, 하반기 추가 등록 기간에는 새로운 선수를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징계는 광주가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420만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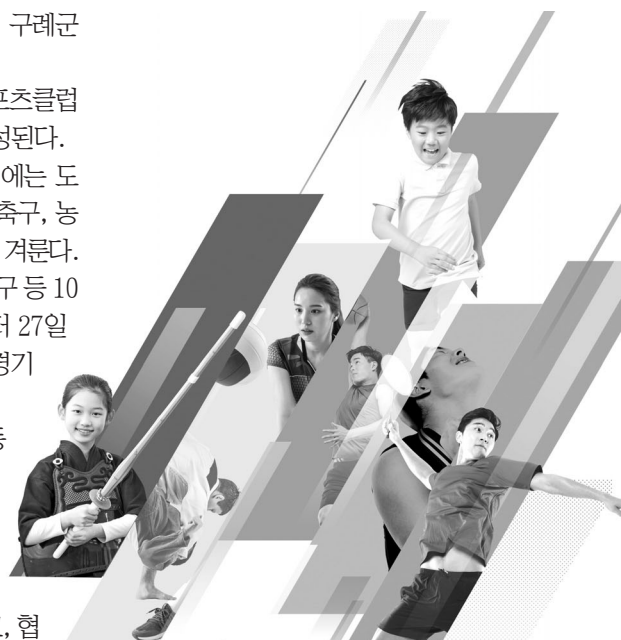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 17일부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은 것부터 시작됐다. 관련 업무를 보던 구단 담당자가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휴직하면서 광주는 연대기여금을 송금하지 않았다. FIFA의 ‘선수 등록 제재’ 징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광주는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10여 명의 선수를 영입해 경기를 치렀다. 축구협회 역시 FIFA의 징계 공문을 광주에 전달했지만, 후속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광주의 선수 등록을 받아주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결국 FIFA는 지난 6월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축구협회와 광주에 대한 징계 검토 절차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번에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통보했다. FIFA는 더불어 이번 결정문에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FIFA의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다.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고,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광주 관계자는 “아직 FIFA 공문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이의 제기 여부는 내부 논의를 더 거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구례서 전남 학생 스포츠 문화축제 열린다

25~27일…6096명 참가

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는 ‘2025 전남 학생 스포츠 문화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구례군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제19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와 스포츠·문화·예술 체험 부스로 구성된다. ‘제19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6096명이 참가해 축구, 농구, 배구, 피구 등 총 2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18일부터 24일까지 풋살, 배드민턴, 피구 등 10개 종목이 사전경기로 진행된다. 25일부터 27일까지 축구, 탁구, 씨름 등 15개 종목의 본경기가 이어진다. 체험 부스는 구례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에서 운영되며, 학생들과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이번 축제는 ‘함께하는 즐거움, 어울림 속의 성장’을 기치로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심신을 기르고, 협



한국 U-18 야구 대표팀, 세계청소년선수권 4위로 마감

대만에 2-3 패

한국 18세 이하(U-18) 야구 대표팀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U-18 야구월드컵)를 4위로 마쳤다. 석수철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14일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셀룰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위 결정전에서 대만에 2-3으로 패했다. 한국은 2회 김건휘(충안고)가 좌월 솔로포를

터뜨려 선취점을 뽑았지만 역전패했다. 2-2로 맞선 7회초 2사 2루에서 대만 장덩이가 중전 안타를 쳤다. 이때 한국 중견수 오재원(유신고)이 정확하게 홈 송구를 했고, 포수 이희철(원주고)이 주자 정성언을 태그했다. 주심의 첫 판정은 아웃이었다. 하지만, 대만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고, 대만의 득점이 인정됐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홈페이지 문자 중계는 ‘주루 방해로 인한 득점’이라고 표기했다. 한국은 아쉬운 판정 속에 대만에 결승점을 내줬다. A조 예선 2루회 슈퍼라운드 진출한 한국은 대만(8-1)과 파나마(9-0)를 꺾었지만, 미국(0-1)에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3위 결정전에서 다시 만난 대만에는 한 점 차로 패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천영록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 천영록 개인전

일시 : 2025-09-19(금) ~ 2025-10-26(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99회 정기연주회 'Fall in love with Opera'

일시 : 2025-10-1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